‘아이들의 꿈’ 무대 위에 서다

광주형 무상 음악교육을 표방하는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꿈의 오케스트라’가 리허설 합주를 진행하고 있다. 〈남구문예회관 제공〉

광주형 ‘엘 시스테마’ 남구문화예술회관 ‘꿈의 오케스트라’
23일 유안초·30일 화천기공 하남공장서 공연…위로·희망 메시지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였던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는 1975년 베네수엘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를 설립했다. 스페인어로 ‘시스템’을 의미하는 엘 시스테마는 폭력, 마약 등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음악’을 매개로 비전을 심어주고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원으로 문화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등 ‘한국형 엘 시스테마’를 기치로 내건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오는 23일 오후 5시 30분 남구 유안초 운동장, 30일 화천기공 주식회사 하남공장에서 ‘꿈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5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과 맞물려 열리는 각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비지원 사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먼저 오는 23일 유안초에서 ‘신나는 오케스트라 운동장 연주회’라는 주제로 공연이 펼쳐진다. 누구나 오가며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클래식 명곡과 영화음악 OST 등 총 9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1968년 발매된 비틀즈 곡 ‘오블라디 오블라다’로 막을 올린다. ‘삶은 진행된다, 삶은 계속된다’라는 후렴구는 관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이문세의 ‘붉은 노을’, 바이올린 소품곡으로 사랑받는 엘가 ‘사랑의 인사’ 등이 울려 퍼진다.

오스트리아 작곡가인 요한 스트라우스 1세 곡으로 매년 비엔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라데츠키 행진곡’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클래식 공연 중에는 악장 사이라도 박수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 작품을 연주할 때 일부 악단은 관객들이 박자에 맞춰 손뼉 칠 수 있도록 유도하곤 한다.

동일한 레퍼토리로 30일 화천기공(주) 하남공장에서 ‘퇴근길 쉼 콘서트’도 열린다. 지역 중견기업 근로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예술로 휴식을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한편 올해로 12년 차를 맞은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는 관내 18개 초등학교 및 10개 중학교에서 모인 아동·청소년 69명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 9개 파트 악기로 구성돼 있으며 ‘전 과정 무상 교육’을 추구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인 1악기를 무상 대여해 준다.

이들은 2013년 8월 ‘제1회 향상음악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정기연주회,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초청공연 등으로 지역민을 만나 왔다. 오는 8월에는 무안군청, 고창문화원 등과 함께 ‘따로 또 같이 뮤직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예회관 서영란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립거점 기획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 소외계층, 예술 지망생들에게 ‘꿈’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엘 시스테마를 한국형·광주형 모델로 잘 가다듬어 지역에 정착시킬 것이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 69회 호남예술제 입상자-피아노

〈심사위원〉
구재향(호남신학대 교수)
박규연(군산대 교수)
서윤진(광주교육대 교수)
신수경(전남대 교수)
이성은(전남과학대 교수)

◇ 중등부 1,2학년
▲ 금상
5 김세음(광주예술중1)
16 이여준(목포영화중1)
19 임지나(광주예술중2)
20 민예진(목포중앙여자중2)
21 강범기(서강중2)
36 김수인(광주예술중2)
59 임채빈(구례여자중2)
▲ 은상
1 김사랑(광주예술중1)
2 서수인(수완하나중1)
13 임한범(나주금천중2)
23 윤효명(목포국제기독학교1)
24 장유림(목포애향중1)
25 황혜은(지명중1)
26 곽다예(광주예술중1)
32 김채린(광주예술중1)
34 김래원(광주예술중2)
41 강명재(광주예술중1)
42 이준모(봉선중1)
43 오상교(송광중1)
45 최지향(광주예술중2)
54 정세영(산정중1)
57 박서연(광주예술중2)
▲ 동상
6 백효린(군산동원중1)
10 최하연(나주금천중1)
17 서명건(산정중1)
18 이연주(선화예술중1)
22 김연지(낭주중2)
30 조서연(광주진흥중1)
39 박봄(광주예술중1)
60 이호은(광주동신여자중2)

◇ 중등부 3학년
▲ 금상
1 윤가연(광주예술중3)
4 정소윤(광주예술중3)
14 김채윤(광주예술중3)
▲ 은상
2 이소원(구례북중3)
6 이예서(월곡중3)
7 양채원(광주예술중3)
8 박주원(여수웅천중3)
9 박수민(순천승평중3)
10 주지율(여수웅천중3)
15 조하준(노화중3)
16 김효민(선운중3)
▲ 동상
17 장윤영(임곡중3)

◇ 초등부 1,2학년
▲ 최고상
28 한원우(문흥초1)
▲ 금상
30 김하람(운천초2)
33 김선율(정암초1)
40 송준우(운천초2)
58 신상우(운천초2)
▲ 은상
6 전가현(불로초2)
9 전아현(불로초1)
11 최도혁(선운초2)
29 나서연(빛가람초2)
35 박라은(운천초2)
45 박수현(운천초2)
61 박선후(목련초1)
68 김다민(광양마동초2)
69 문유한(순천조례초2)
75 김채린(광양마동초2)
85 강지호(수완초1)
91 이서율(불로초1)
94 한겸(경양초1)
111 송한서(화정남초2)
116 서하담(겨자씨크리스챤스쿨2)
▲ 동상
1 김아현(주월초2)
10 옥하론(화정남초2)
13 김보민(화정남초2)
15 곽민설(광주교대광주부설초2)
18 이은채(용주초2)
25 김연아(라온초1)
26 김지우(운천초2)
31 박하영(어룡초2)
34 남민송(한아름초2)
46 정하윤(한아름초2)
55 최지윤(남평초2)
66 이차민(부안동초2)
76 이루미(전주만성초2)
82 김예준(목포영산초2)
95 이서우(불로초2)
97 김유림(문산초2)
107 박하진(정읍북초2)
108 김나현(지한초2)
110 박시진(광주동초2)
113 임재원(웅천초2)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정용준 작가 ‘오영수문학상’

고령화 사회 다룬 단편 ‘자유인’

광주 출신 정용준〈사진〉 작가가 제32회 오영수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단편 ‘자유인’이며 상금은 3000만원.

오영수문학상운영위원회는 9일 올해 오영수문학상 수상작품에 전용준 작가의 ‘자유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수문학상은 울산 출신 작가 오영수의 문학적 혼을 기리고 문학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제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은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뤘고, 대상에 대한 집요함, 세계에 대한 균형감각, 정직함, 서사적 밀도, 뚜렷한 문제의식 등을 탁월하게 드러낸다”고 평했다.

수상작 ‘자유인’은 존엄사를 모티브로 하는 소설이다. 존엄사를 강제하는 가상의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으로, 작가는 죽음마저 통제하는 국가 체제에 맞서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를 선택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

정 작가는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소설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봤다”며 “한국문학의 소중한 정신인 오영수 소설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문학상을 수상한 선배 작가들을 생각하며 향후에도 좋은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조선대 러시아어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황순원문학상, 문지문학상,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소설집 ‘가나’ 등과 장편 ‘바벨’, ‘프롬 토니오’ 등과 산문집 ‘소설만세’ 등을 펴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 울산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

ACC재단,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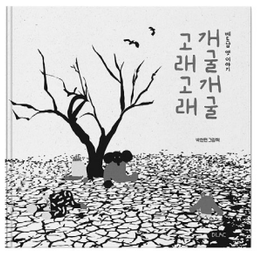
이맘때 저녁 시골 들녘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한창이다. 5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개구리 울음과 농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모티브로 창제작한 공연 콘텐츠가 그림책으로 탄생해 눈길을 끈다. 특히 창제작 공연 원 텍스트는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모티브로 한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어린이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를 발간했다.

ACC재단에 따르면 이번 그림책은 볼로냐 국제도서전 수상작가인 박현민 작가가 글과 그림을 맡았다.

그림책은 오랜 기간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자연 속 동물들과 개구리의 이야기를 담았다. 동물들과 개구리 구르구르가 비를 찾아 떠나면서 겪는 다양한 일들이 중심 줄거리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고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김잔디 문화사업개발팀 담당자는 “이번 그림책은 어린이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는 글과 그림으로 구성돼 있다”며 “볼로냐 국제 도서전 수상을 비롯해 2022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박현민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고 밝혔다.

한편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도서와 연계된 상품은 ACC 문화상품점 ‘들락’과 어린이 문화원 내 상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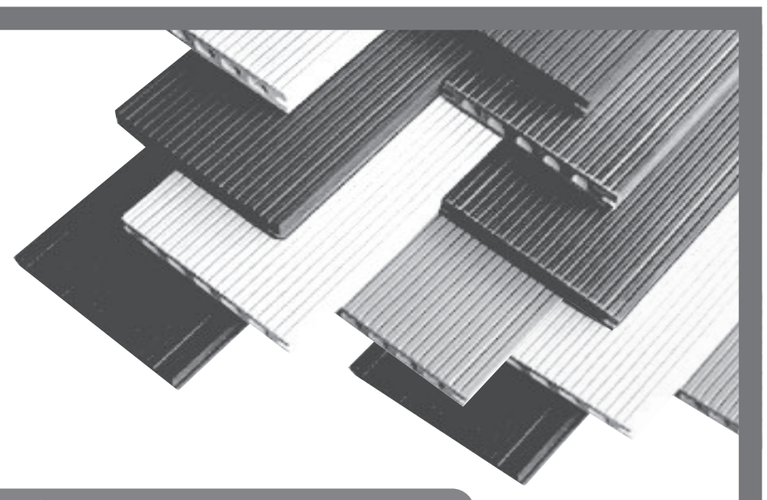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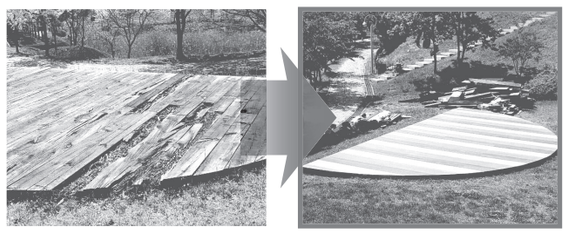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